

오늘은 아침부터 운동을 해야되는 피곤한 날이다. 학교에 8시까지 가야되서 7시에 일어났고 목요일날 운동한게 아직 또 아파서 일어나는데 몇분이나 걸렸다. 열심히 뛰기 위해서 밥을 금 먹고 씻고 학교로 갔다. 오늘은 체육관이 공사를 하는 바람에 어쩔수없이 운동장에서 체력단련심화반을 해야 했다. 오늘운동은 몸풀기부터 심상치 않았다. 처음가서 한 몸풀기가 운동장 15바퀴였다. 쌀쌀한 날씨에 피곤한 몸에 정신도 없고 매우 힘들었다. 운동장을 뛰고 난후 기본적인 스트레칭과 박세운동을 했다. 제자리 뛰기 운동장에서 뜰 알리기 한명업고 뛰기 전역질주하기 등등...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안으로 들어가서 단체로 탁구를 쳤다. 힘들어서 잘치지도 못했다. 8시부터 10시까지 아주 박하게 운동을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과일을 많이 먹고 누워서 TV를 봤다. 그리고 1시간동안 '당신들의 천국'이라는 책을 읽었다. 게임도하고 휴대폰도 많이 놀았다. 내가 오늘한 일들은 ~~이~~은 아예 전부다. 지금 너무 피곤해서 딱히 쓸내용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쓰겠다. 요즘나의 생활은 너무 힘든것 같다. 일요일을 제외하곤 쉬는날이 없기 때문이다. 월, 화, 수, 목은 방과후업을하고 월, 수, 금은 야자를하며 화, 목, ~~토~~ 는 체력단련심화반을 한다. 이래서 평일엔 집에 밤늦게 오게된다. 이런생활을 계속해야 하니 걱정이 되지만 다 나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는것이야. 간자율학습, 방과후수업을 통해 학습을하고 일주일에 세번 엄청나게 힘든 체력단련 심화반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한다. 나에게도 걱정이 가지 않다. 학생들모두가 하는 평범한 걱정이지만 공부도 어렵다. 초등학생은 어느정도 했는데 중학교 배정이 창동중학교로 되는 바람에 문제가 너무 어렵게 나와서 공부에대한 의욕이 없어진것 같다. 사실 중학교때도 그리못한건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와보니 정말 시험문제의 클래스가 온것 같다. 앞으로 열심히해서 공부도 잘해지고 싶다. 나는 체육학과에가기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시가 달라져서 체육학과든 어느학과든 공부가 뒷받침 해주어야 한다고 한다. 운동과 공부를 둘다 잘하긴 힘들겠지만 내가 할수있는 만큼해서 서울에있는 ~~대~~대학교에 가고싶다. 이런러런 이야기를 하다보면 어느새 A4용지를 거의 꽉 채웠다. 지금나의 상태는 매우 졸리고 피곤하다. 내일은 일요일이라서 아주오랜만에 늦게 일어나야 겠다. 주말이되니 너무 편한하대. 지금시각은 밤 11시 이제 자야되겠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발날 계획이다. 오늘하루너무 재미있었고 ~~이~~ 힘들었다.